

따뜻한 만남으로 행복을 나누세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01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유방암 적정성 평가 1등급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11일 발표한 유방암 적정성 평가 결과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평가는 '구조' (전문 인력 구성 여부), '진료과정' (유방암 가족력 확인 비율, 전신상태 평가기록 비율, 보조치료 동의 비율 등 17개 항목), '치료결과' (평가입원일수, 입원진료비 등 2개 항목) 등 3개 영역에서 진행되었으며 본원은 20개 부분 모든 항목에서 100점 만점을 받아 완벽한 병원임을 입증했고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1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한편, 본원은 2012년 유방암, 대장암 및 2013년 5월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도 1등급을 받은 바 있다.

02 임균일 교수, 아시아 최초로 미국 정형외과 연구학회지 편집위원 위촉



정형외과 임균일 교수가 아시아 최초로 '미국 정형외과 연구학회지 (Journal of Orthopaedic Research)' 편집위원회 위원(editorial board member)으로 선임되었다.

'Journal of Orthopaedic Research'는 미국 정형외과 연구학회 (Orthopaedic Research Society) 학술지로 정형외과 기초연구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저널로 알려져 있으며, 임균일 교수는 2015년 1월부터 논문선정과 학회지 서문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재 임균일 교수는 세계정형외과 연구학회(international combined ORS)의 평의원으로 활동 중이며, 지난 10월에는 미국에서 간행되는 조직공학의 우수 저널 'Tissue Engineering'(IF:4.2) 표지로 채택된 바 있다.

03 교직원 불자회 연우회, 대구 동화사에서 의료봉사활동 펼쳐

교직원불자회 연우회(회장 성낙진)는 6일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를 찾아 수행에 전념하느라 건강을 챙기기 어려운 스님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봉사는 올 한해를 마감하는 12월의 승가 의료봉사로 지도법사 증휘 스님, 가정의학과 성낙진 교수, 침구과 이승덕 교수 등 연우회 회원 25명이 참여하여 맞춤형 양 · 한방진료, 영양수액치료, 물리치료 등을 시행했다. 특히 제9교구 본 · 말사 스님들의 수행 · 정진 시작일인 동안가 결제일에 이루어져 그 의미를 더했다.

연우회장 성낙진 교수는 "스님들은 몸이 불편하셔도 외부에 나갈 시간도 없고 건강에 대해 편하게 말씀할 곳도 마땅치 않다."며 "스님들을 위해 연우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라고 말했다.



04 2014년 자원봉사자 평가대회 성료

사회사업실은 5일 본원에서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 130명을 대상으로 2014년 자원봉사활동 평가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자원봉사활동과 웰다잉'의 소양교육으로 시작하여 2014년 자원봉사활동 영상감상, 시상식, 오찬 순으로 진행되었다. 시상식에서는 총 29명의 자원봉사자가 개근상, 근속상 (500시간, 1,000시간, 2,000시간, 3,000시간), 모범자원봉사자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자원봉사활동 평가대회는 한 해 동안 본원을 위해 수고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건강하고 보람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매년 연말에 시행하고 있으며, 바람직한 봉사자 상(像)을 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05 일반건강검진으로 100세 건강 미래를

일반건강검진은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가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본인의 건강을 체크하는 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특히, 생애전환기 검진, 암 검진 등 나이에 따라 맞춤형으로 시행하여 본인의 건강을 확인하는데 효과가 크다.

건강운영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일반건강검진이 12월 초에 모두 마감되었으며, 매년 12월은 수검자들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으므로 빠르고 정확한 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12월 전에 예약을 하고 검진을 받는 것이 편리하다고 전했다.



연말정산 Tip+

세 번째 시간 >>>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해요?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서 정산하는 게 유리하다.

소득이 많은 쪽으로 부양가족 공제, 신용카드 등을 한꺼번에 모는 것이 유리하고,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소득자일수록 환급 세액도 크다. 단 급여수준이 비슷한 부부의 경우라면 부양가족을 양쪽에 비슷하게 배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맞벌이 부부는 반드시 연말정산 자동계산 사이트에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유리한 쪽으로 공제하는 것이 좋다.

알 리 미

TV 방송 프로그램 : KBS1 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일시 : 2014년 12월 18일(목) 오전 10시
출연 : 사상제철과 배효상 | 주제 : 우정과 연금